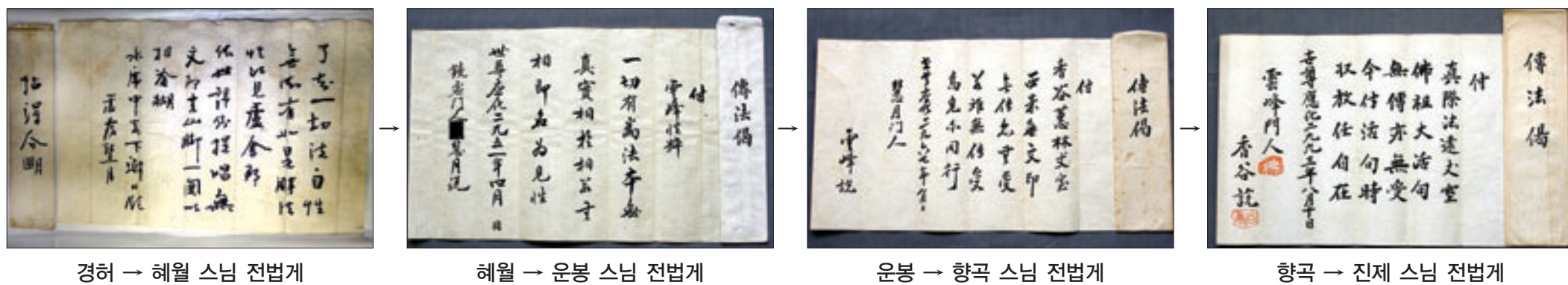


경허 스님부터 진제 스님까지 '傳法의 궤적'



경허 → 혜월 스님 전법계

혜월 → 운봉 스님 전법계

운봉 → 향곡 스님 전법계

향곡 → 진제 스님 전법계

진제 스님 소유 전법계 등 8점 부산시 유형문화재 지정 추진

한국 전통불교의 법맥을 증명하는 조계종 중흥 진제 스님의 전법계와 일종의 법맥도인 등등상속이 부산시유형문화재로 지정이 추진된다. 진제 스님은 7월 26일 부산 해운정사에서 소유하고 있던 전법계 4점, 등등상속 4점 등 총 8점을 언론에 공개했다. 진제 스님이 소장하고 있는 전법계 4점은 1967년 향곡 스님이 진제 스님에게 전한 전법계부터 경허 스님이 혜월 스님에게, 혜월 스님이 운봉 스님에게, 운봉 스님이 향곡 스님에게 전한 전법계다. 한편 부산시는 9월까지 부산시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모든 조사와 절차를 마치고 등재를 완료할 방침이다. 김나영 객원기자

여름 산사에 내 마음을 부탁해볼까

불교문화사업단 선정 여름 템플스테이 10선

올해에도 어김없이 여름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산과 바다로 떠난다. 휴가의 절정인 8월을 맞아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이 색다른 피서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 10선을 선정했다. 얼마 남지 않은 여름, 아름다운 산사에 마련된 풍성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자.

자연으로 돌아가 동심을 즐기자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최초로 청소년수련활동인증 받은 성주 심원사에서는 '검정 고무신 동심체험'이 기다리고 있다. 녹음이 우거진 가야산 생태학습·트레킹은 물론, 별빛달빛 레크레이션과 만다라 명상으로 학업에 지친 학생들의 피로를 말끔히 해소해 줄 예정이다. 8월 17~18일은 중학생, 22~23일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聽) 들어주고 마음'을 '말' 어주는 '청마찰 템플스테이'로 유명한 대구 동화사와 역사와 문화의성 강화도에 위치한 전등사에서는 8월 7일까지 각각 어린이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두 템플스테이 모두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호연지기를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가족과 함께 산사로 'GO GO'

술 내음 가득한 소나무 숲길에 인상적인 공주 마곡사에서는 '수리수리 가족 여름캠프'를 통해 가족여행의 참 맛을 느낄 수 있는 템플스테이가 8월 9일부터 24일까지 총 세 차례 진행된다. 숲속명상체험, 탑돌이 및 발우공양, 징검다리 걷기명상 등 자연 속에서 누리는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소박하고 안전한 사찰로의 가족 여행은 어떨까.

서산 부석사에서 8월 23~24일, 30~31일까지 '사랑합니다. 나의 가족'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서로에게 108배하기, 우리 가족 자랑하기 등을 통해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소중함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다.

도심 어디에도 없는 피서를 꿈꾼다면 계룡산 갑사에서 열리는 본격 가족캠프에 참여해보자. 계룡산의 힘찬 기운을 받은 쾌청한 산사에서 진행되는 여름 템플스테이가 8월 초부터 말까지 총 6차례 준비되어 있다. 108명주 꿩기, 탑돌이, 발우공양으로 수행자의 삶을 체험해보고, 용문폭포 표행과 계룡산 트레킹을 통해 유명 피서지 못지 않은 청량함을 맛볼 수 있다.

'기차چه 노는' 놀이 템플스테이로 유명



한 영암 도갑사에서 선보이는 '함께라서 좋은' 가족 템플스테이는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다. 행복충전을 위한 다채로운 놀이 프로그램(웃음꽃 놀이, 숲속놀이, 아빠 힘내세요 외)을 가족과 함께 신나게 누려볼 일이다.

내면을 찾는 여행을 떠나자

무거워진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싶을 때, '자기 자신과의 싸움. 절, 어디까지 해봤나'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부산 범어사의 독특한 수행정진 프로그램 '용맹정진 템플스테이'에 도전해보자.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낼 삼천 배와 참선에 오롯이 집중해본다. 만해 한용운의 기운이 서린 인제 백담사

에서는 8월 한 달 동안 6차례에 걸쳐, '꿈, 희망 찾아가는 숲 명상'을 준비했다. 자비 명상, 돌담 쌓기, 맥놀이, 마음 나누기를 통해 설악산 깊은 자락에서 소중한 꿈과 희망을 찾아가는 기회를 제공한다.

구례 화엄사에서는 내 삶의 자존감 형성을 위한 '나는 참 예쁘다' 템플스테이를 연다.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금강경 독송, 에너그램, 물뿜기 명상 등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깨우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4년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에 대한 내용과 참가 신청방법, 이벤트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템플스테이 공식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당집”, 한국 禪師 10명 편찬때부터 포함

변인석 아주대 명예교수, 기존 학설 반박
편찬자 중 '균 선사' 해동 구법승 추정해

초기선종사의 중요한 선문헌 '조당집(祖堂集)'에 수록된 한국선사 10명이 고려에서 개편되며 포함됐다는 기존 학설을 뒤집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인석 아주대 명예교수는 <한국고대사탐구> 16집에 게재한 '조당집의 증보에 관한 논란의 부정적 시각' 논문에서 <조당집>에 있는 '동국선사 10인전(十人傳)'은 편찬 당시 포함된 것으로 특히 편찬자 중 한명은 해동구법승으로 동국선사가 실린 것은 선종사 흐름상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당집>은 952년 중국 오대 남당(南唐)의 천주(泉州) 초경사(招慶寺)에서 정(靜)과 균(筠) 두 스님에 편찬됐다. 중국에서는 현재 전해지지 않는 <조당집>은 1912년 일본 학자에 의해 해인사 고려대장경 판본 조사 당시 발견됐지만 1928년 일본학자 오야 도쿠조가 고려에서 광준 스님이 개편하며 10명의 신라 스님을 포함시켰다는 주장을 제기해 정설처럼 자리

했다.

변 명예교수는 "조당집에 수록된 동국선사들 중 혜철과 홍직 스님의 경우 23~25자의 단문으로 서술됐는데, 만약 고려에서 증보했다면 상세히 보충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 또 천주지역의 방언과 속어, 불교지리 등이 그대로 나와 고려에서 증보한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변 명예교수는 "조당집은 서천(인도)과 동진(중국)의 조사를 함께 다루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동국선사들의 등장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특히 이 조당집의 편찬자 중 한명인 '균' 선사는 해동구법승으로 보이며 천주에 가까운 신라원에서 자료를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 명예교수는 "조당집은 편찬에서 개편까지 해동선사들의 능동적인 역할이 드러난 한류의 결과물이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4대 종교 지도자 '이석기 선처' 탄원서 파문

불교 자승·도법 스님 참여... 보수단체 반발 잇달아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4대 종교 지도자들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가톨릭 영수정 추기경,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 김영주 총무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 원장 등 최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에 선처 탄원서를 냈다. 탄원서 제출자 명단에는 천주교 김희중 광주대교구 대주교, 조계종 도법 결사본부장, 성공회 김근상 주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전염이 두려워 나병 환자들에게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을

때,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종교인의 사명"이라면서 "누가 어떤 죄를 범했든, 도움을 요청하면 그 죄를 묻지 않고 구원을 위해 기도해주는 것이 종교인의 마음과 자세"라고 강조했다.

탄원서가 종교인의 인도주의적 자제임을 강조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보수 단체와 언론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강하게 형성됐다. 보수우익단체 활동단은 7월 29일 조계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28일 항소심 심리를 모두 마친 뒤 내달 11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일제 약탈 유물 '오쿠라 컬렉션' 되찾기 본격화

해문 스님, 1일 도쿄博에 도난 의혹 34점 소장 중지 신청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해문 스님이 일제시대 일본이 한반도에서 반출해간 문화재 중 가장 중요한 유물들로 꼽히는 '오쿠라 컬렉션'을 반환받기위해 나섰다.

조선왕조 의궤 등 해외 반출 문화재 반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해문 스님(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은 7월 31일 "오쿠라 컬렉션을 보관하고 있는 도쿄국립박물관 측에

8월 1일 문화재 소장중지를 신청하는 내용의 '조정 신청서'를 발송한 뒤 20일까지 회신 이 없을 경우 정식으로 일본 도쿄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오쿠라 컬렉션은 일제시대 남선합동전기 회사 사장인 오쿠라 다케노스케(1896~1964)가 1922년에서 1952년까지 수집해 반출한 문화재 1100여점이다. 이

중 39점이 일본 국가문화재로 지정됐다. 성보문화재로는 석가여래좌상, 약사여래상, 사천왕사 기와 등이 있다. 이 문화재들은 오쿠라 사후 '재단법인 오쿠라 컬렉션 보존회'가 관리하다 1981년 도쿄국립박물관에 기증했다.

해문 스님이 소장 중지 및 반환을 요청한 것은 도난 혹은 도굴의 의혹이 짙은 34점으로 △'조선 대원수 투구' 등 왕실 유물 9점 △경주 금관총 출토 유물 8점 △부산 연

산동 가야 고분 출토 유물 4점 △경남 장영 출토 유물 13점 등이다.

해문 스님은 "이들 문화재는 왕실이 관리했기 때문에 오쿠라가 이를 수집했다면 도난품을 사들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오쿠라 컬렉션은 1960년대 한국 정부가 일본에 반환을 적극 요구했지만, 일본 측에서 '민간의 소장품'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해문 스님은 "일본 최고의 박물관인 도쿄국립박물관이 도난·도굴품을 소장하고 있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당시 민간 소유 또한 현재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31면> 노덕현 기자

학부교육부의 미래는 없다

『신문열풍』에서 가려 뽑은 화두 53선

기존의 화두공부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렇다면 화두공부의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가?
새로운 접근으로 화두의 본질과 공부를 지어 나가는 방법을 제시한 책!

이수경 지음/신국판/330쪽/값 15,000원

극락왕생을 위한 임종 안내서

임종,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인생에서 피할 수 없이 맞이해야 하는 죽음, 임종을 앞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임종을 맞이한 가족과 지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임종시 실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매뉴얼을 담은 책!

염불을 통해 극락정토에 왕생한 영험담 수록

인경, 홍일 지/박영규 외 옮김/신국판/248쪽/값 11,000원

광대무변한 화엄 세계의 핵심을 210자로 압축한 계승!

법성세계

의상대사의 '법성계'를 신수행의 입장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풀이하였다.

한편 재판부는 28일 항소심 심리를 모두 마친 뒤 내달 11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의상대사 지음/김상백 풀이/신국판/206쪽/값 1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